



11면

임실군청 사격선수단 관심·지원 '만전'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4년 8월 14일 수요일 (음 7월 11일) 제3567호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튜링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추진 '탄력'

### 국토부, 새만금SOC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 절차 등 '적정' 전북자치도, 2029년 개항 목표로 관계기관과 긴밀 협력

교통·물류 트라이포트의 핵심 축을 구축하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국토부가 새만금 SOC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사업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에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2025년 착공 및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각종 절차의 신속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 절차와 방법 등이 적정하게 추진됐다는 내용의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에 등재했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국토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SOC사업의 적정성 검토 용역을 지난해 11월 착수해 올해 6월까지 8개월간 추진했다.

적정성 검토 결과 적법성, 연계성, 준수성, 합리성, 공신력 등 5개 검토지표를 모두 충족해 새만금 SOC사업의 추진 당위성이 확보됐다.

서울지방항공청이 추진하는 활주로·계류장 등 에어사이드 건설은 지난 6월에 H중공업 컨소시엄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돼 현재 연내 완료될 목표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추진하는 여객터미널·주차장 등 랜드사이드 건설은 지난 7월 설계 공모를 공고해 연내 설계업체를 선정해 설계를 착수할 계획이다.

'H중공업 컨소시엄'은 기본설계 제안 시 장애 활주로 확장을 대비해 기본계획상 C급보다 높은 E급 항공기 기준을 적용한 기하구조 확보를 제안했다.

또한, 기본계획상 직각 유도로 외 평행 유도로·고속탈출 유도로를 추가 설치하고, 각종 안전시설을 보장해 활주로 운영 등급을 기본계획상 CAT-I보다 상향된 감해·제주공항과 같은 CAT-II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기본계획상 주기장 5개소의 경향공기·경정비 주기장 6개소 추가 설치, UAM(도심항공교통) 버티포트 기반 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새만금 호내 준설토를 매립재로 활용하고, 대형 준설선 2대를 동시에 투입하는 등 소요 공기를 일할 공고상 공사 기간 54개월에서 48개월로 단축해 여유 공기 6개월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2025년 초에 착공하는 경우 2029년 개항이 차질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지역의 민간투자 유치 촉진 △지역 경제활력 제고 △국제 접근성 향상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



김광수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이 13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과 관련된 브리핑을 갖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한 기반 시설로, 함만·철도와 함께 새만금 지역의 육·해·공 '교통·물류 트라이포트(Tri-Port)'를 구성하는 등 새만금 지역의 조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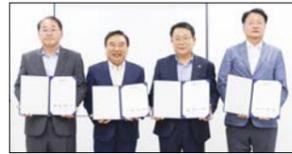
그동안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적정성 검토 용역 및 국가예산 확보 과정에서 사업 필요성을 관계기관(국토부, 기재부, 한국교통

연구원 등)에 지속적으로 설명·건의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2025년도에 착공하고, 2029년도에 개항할 수 있도록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행정 절차의 신속한 이행 및 국가예산 확보 등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김광수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을 비롯한 새만금 SOC 사업 추진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국제공항이 2029년도에 개항할 수 있도록 도민들과 함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8월 15일 광복절로  
신문은 16일 발행합니다.



### 익산시-세브브로이맥주 식품클러스터 투자협약

#### 1만3444㎡ 부지에 50억 투자

익산시가 세브브로이맥주(주)와 국가 식품클러스터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식품시장을 선도할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시는 13일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위치한 세브브로이맥주 익산공장에서 투자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이명남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본부장, 김강삼 세브브로이맥주(주) 대표이사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브브로이맥주(주)는 맥주뿐만 아니라 하이볼, 위스키 등 생산 제품 확장을 위해 황성군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로 분사를 이전할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1만3,444㎡(약 4,067평) 부지에 50억을 투자하고 20여 명의 근로자를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세브브로이맥주(주)는 최고급 홉과 맥아 등 엄선된 재료를 사용하는 대한민국 수제맥주 전문 기업이다. 특히 수제맥주 최초로 에일맥주를 선보이며 중소기업으로는 맥주 제조 일반변허를 최초로 취득했다.

또한, 최근에는 토트넘 홋스퍼 FC 등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가진 제품을 선보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 '3무(無)'에 더해 친환경 축제로

(바가지요금·일회용품·안전사고 無)

### 무주군, 전북자치도청에 '반딧불축제' 디데이 알려

#### 축제 주요 프로그램 등 공유... 31일~9월 8일 개최



무주 반딧불축제 반딧불이 신비탐사.

(사진=무주군청 제공)

무주군은 1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자실을 찾아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의 디데이(D-day)를 알렸다고 밝혔다.

황인홍 무주군수와 유송열 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장 등 무주군 관계자들은 이날 지방지와 중앙지 기자실을 각각 찾아 8월 31일부터 9월 8일 개최되는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의 주제와 지향점, 프로그램 등 주요 내용들을 공유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반딧불축제는 자연과 사람의 공존을 지향하는 환경축제로 환경지표 곤충이자 천연기념물인 '반딧불이'를 소재 삼아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전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며, "올해는

또, 바가지요금과 일회용품을 없애기 위해 모든 먹거리 부스 입점업체를 공개 모집했으며, 음식 가격과 양 등을 사전에 조율하는 한편, 다화용기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먹거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도 사전에 진행, 운전자 마인드 함양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오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9일간 등나무운동장 등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는 '자연특별시 무주로의 힐링 여행'을 주제로 반딧불이 신비탐사 등 환경탐사 프로그램을 비롯해 '남대천 생명+(치어방류 & 소원지 날리기)'를 비롯한 체험 판매, '부남 배소배물이 굿놀이'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반디 빛의 향연(무주 안성낙화놀이 & 드론쇼 & 불꽃 & 레이저쇼)' 등 야간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올해는 '바가지요금·일회용품·안전사고 없는 3무(無) 축제'를 기본으로 △친환경 가치 실현과 △글로벌 축제 도약, △지역주민 참여 확대 목표를 실현한다는 방침으로 친환경축제의 모범이 되는 한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활력 충전, 지역사회 화합과 소통, 공존과 상생 관계 형성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만 42만 방문객을 불러 모았던 무주반딧불축제는 1997년 '자연의 나라 무주'라는 주제로 첫선을 보인 이래로 10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축제, 5년 연속 최우수 축제, 2년 연속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축제, 2024 피너클어워드, 에코투어리즘 분야 축제로 선정되며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영예문화관광축제

www.firefly.or.kr

## 제28회 무주 반딧불축제

2024. 8/31(토) - 9/8(일)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주최: 무주군

주관: 무주반딧불축제 재단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관광공사, 전북문화관광재단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15

문의: 063-324-2440